

말씀대로 365와 함께하는

FAMILY DAY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5
7·8·9월호 소개 -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자	06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8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9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07.04 ~ 07.10	바른 길을 가는 정직	12
2주	07.11 ~ 07.17	내가 여기 있습니다	14
3주	07.18 ~ 07.2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16
4주	07.25 ~ 07.31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18
5주	08.01 ~ 08.07	사랑의 불시착	24
6주	08.08 ~ 08.14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26
7주	08.15 ~ 08.21	말씀을 실천하는 에스겔	28
8주	08.22 ~ 08.28	참된 목자	30
9주	08.29 ~ 09.04	변치 않는 마음으로	32
10주	09.05 ~ 09.11	하나님을 찾으라	38
11주	09.12 ~ 09.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40
12주	09.19 ~ 09.25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	42
13주	09.26 ~ 10.02	좋은 땅이 되는 우리 가정	44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데이) 소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세웁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시 133:3 *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7-9월호를 시작하며...

어릴 적 친구들과 정상에 올라 본 북한산 백록담의 여정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제대로 된 첫 산행이었고, 산을 맛본 날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경사 높은 길이 선사해준 이 전에 겪어 보지 못한 다리 근육의 고통, 목마름, 거친 호흡, 길을 놓쳐 우왕좌왕하며 내심 두려워했던 기억. 그러면서도 모든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는 신비한 고요함과 맑은 공기, 그리고 첫 능선에 올랐을 때의 쾌감! 산을 좋아하게 만든 경험입니다.

산,
올라 보지 않은 산을 오르기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길도 익숙하지 않고, 가파른 경사로 힘들며,
굽이 도는 길은 다음을 예측할 수 없게 합니다.

봉우리들도 많습니다.
한 능선에 올라 펼쳐진 풍광에 환호를 하다가도
다시 능선을 따라 봉우리들을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면 꽤 힘듭니다.

성경,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66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 있고,
거친 돌길이며 가파른 산길들도 많습니다.
산 그늘로 어두운 곳도, 메마른 돌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산에는 초목 푸른 지대도 있고,
곳곳에 생명수와 같은 약수들도 있으며
산을 오르는 이를 위한 매 번의 은혜의 과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산 역시
아직 한 번도 다 올라 보지 않은 이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말씀대로 365 그리고 가정예배,
올해 영락 가정들은 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혹여 처음 오르는 길이라면 혼자 오르기도 쉽지 않을 터인데
요즘 젊은이들 표현처럼, 가족을 ‘케리’하여 오르고 있습니다.
(캐리하다 - 운반하다, 짊어지고 가다)

힘을 내십시오.

어느덧 ‘시편’이라는 이 산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산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올 때는 좀 더 쉬울 것이며,
이 성경 산의 깊은 맛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캐리’하여 함께 이 산을 오르는 자녀들이
후에는 스스로 이 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산은 여호와와 말씀의 산이요
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여호와와 산이며
이 산에서 생명도 얻고
이 산에서 은혜도 얻고
이 산에서 삶이 단련되기도 하며
이 산에서 인생의 방향도 찾고 걸어갈 힘도 얻게 됩니다.

가정과 함께 말씀대로 365 가정예배,
함께 오르는 여호와와 산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 사 2:3 *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잠언 14:11-15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7 JULY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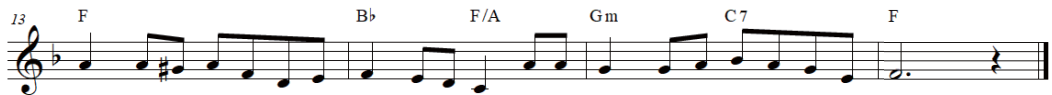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처 못하리 나의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하는 나의 목자 음성 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아로 지켜 주신다



나 - 의 좋은 목자 나는 그 - 의 어린 양 - 철을



따라 쫓을 베풀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 선혀 없어라

7/4-10

1주 가정예배

바른 길을 가는 정직

잠언 14:11-15



이달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1p



말씀읽기 - 잠언 14:11-15

- 11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 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 13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 14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 15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생각하기

Q1. 내 잘못을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나요?

Q2. 정직하게 살기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듣기

오늘 말씀에서는 정직한 사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직이란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좋아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며, 그의 집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첫째,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글을 쓰기 전에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넷째, 정직한 사회를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면서, 사회 전체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나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직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한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7/11-17

2주 가정예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6:1-13



이달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1p



말씀읽기 - 이사야 6:1-13

01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0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0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0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0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던라 0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0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0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0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생각하기

- Q1. 성경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 Q2.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나의 장점이나 재능은 무엇인지 나누어보고, 이 장점이나 재능을 하나님과 우리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말씀듣기

왕이 죽던 해, 곧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에 걱정근심에 휩싸였습니다.^{5절}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출 33:20} 천사들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다른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린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때에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피웠던 솥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악과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후 이사야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으십니다.

이사야는 두렵지만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하며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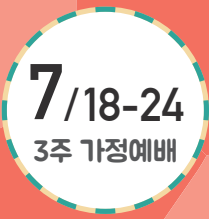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렵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저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고, 저를 보내달라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저를 주님이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38:1-8



이달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1p



말씀읽기 - 이사야 38:1-8

- 0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 0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 03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 04 이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05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 06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 07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 08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 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 도를 물러가니라



생각하기

- Q1.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나요?
- Q2.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말씀듣기

유다왕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나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곧 죽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테니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분노에 사로잡혀 이사야를 벌하지 않았고, 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선한 행위를 기억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우 간절하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셨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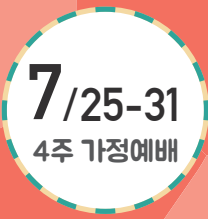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개인과 가정,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논리와 지혜, 권력이나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며, 환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이사야 61:1-3



이달의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1p



말씀읽기 - 이사야 61:1-3

- 0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 0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 0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하기

- Q1. 내 마음이 슬프거나, 내 자신이 작아 보일 때가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멋진데, 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Q2. 마음이 슬프고 작아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 왕과 같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신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해주시면 슬펐던 나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말씀듣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40:1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결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고, 자신을 사랑하던 가족과 이별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들을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을 지켜줄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이 작고 초라한 마음,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작아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희 아픈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너희에게 자유를,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너희에게는 은혜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작아지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에게 화관을 주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너희로 나를 노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위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눅4:18-19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자유롭게 함을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마음이 너무나 작고, 두렵고 떨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작아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8

AUGUST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D F#m Bm G Em A7

나는 아무것 - 도 - 아 님 니 다 - 주 님 의 사 랑 - 이 - 없 으 면 나 는
아 무 것 - 도 - 못 합 니 다 - 주 님 의 능 력 - 이 - 없 으 면 나 는

5. D F#m Bm G G/A 1. D 2. D

아 무 것 - 도 - 모 름 니 다 - 주 님 의 지 혜 - 가 - 없 으 면 나 는 면 이 제
한 순 간 - 도 - 못 살 니 다 - 주 님 의 생 명 - 이 - 없 으

10. G A/G F#m Bm Em A7 D D7

네 가 사 는 것 - 아 니 요 - 그 리 스 도 내 안 에 - 사 시 니 - 오 직

14. G A/G F#m Bm E7 A sus4 A7

그 의 생 명 이 - 나 의 생 명 - 나 의 모 든 날 들 도 - 주 의 - 것 나 는

18. D F#m Bm G A7 D

오 직 한 - 분 - 바 랍 니 다 - 나 의 아 버 지 - 나 의 구 원 - 나 의 주

8/1-7

1주 가정예배

사랑의 불시착

예레미야 2:1-3, 13



이달의 찬양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23p



말씀읽기 - 예레미야 2:1-3, 13

- 0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0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 03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각하기

- Q1.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는 어떨 때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을까요?
- Q2.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별하거나 미워하게 된 사람이 있나요? 그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고,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말씀듣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된 세상에서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곡식이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메마른 광야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같은 이방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씨 뿌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죄의 종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와 노는 것, 게임하는 것, 잠자는 것 심지어 공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8/8-14

2주 가정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예레미야 37:1-10



이달의 찬양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23p



말씀읽기 - 예레미야 37:1-10

01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더라 02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03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04 그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05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06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07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08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0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생각하기

Q1.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친구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때 기분이 어떠했나요?

Q2. 대화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어야하는지 말해봅시다.



말씀듣기

남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도 다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남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과 싸우기 위해 잠깐 물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바벨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오랜 기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드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드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번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누어야 하듯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저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에스겔

에스겔 12:3-7



이달의 찬양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23p



말씀읽기 - 에스겔 12:3-7

- 03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 04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 05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 06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 07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생각하기

- Q1.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어려운 심부름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 Q2.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한 경험이 있나요?



말씀듣기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던 즈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하게 두지는 않으실 것이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동족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12장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 번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단순히 말씀만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특별한 행동을 같이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이 백성들 앞에서 직접 포로처럼 옷을 입고 포로처럼 짐을 꾸리고 포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행동을 통해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포로처럼 옷을 입고 포로처럼 짐을 싸고 포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나라사랑을 실천한 애국 열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한 번의 행동은 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 선조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인 에스겔의 순종과 실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행동으로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말씀에 순종한 에스겔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참된 목자

에스겔 34:20-24



이달의 찬양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23p



말씀읽기 - 에스겔 34:20-24

-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 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 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 22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 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 24 나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생각하기

- Q1. '참된 목자'인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는 참된 '목자'인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요?
- Q2. 하나님께서 가정의 목자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자녀들과 가정이 신앙으로 성숙
하기 위해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말씀듣기

목자로서 세움 받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양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잡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참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를 구원하는 분으로서^{22절}, 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받는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부지런히 찾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목자가 양을 구하고 그들을 편한 곳으로 인도하며 꼴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자, 아픈 자, 상한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목자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복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내 주위의 이웃들을 살피고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8/29-9/4

5주 가정예배

번치 않는 마음으로

다니엘 6:19-23



이달의 찬양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23p



말씀읽기 - 다니엘 6:19-23

- 19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 20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 21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 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생각하기

- Q1.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Q2.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요?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켰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말씀듣기

다니엘은 비록 포로 출신이었지만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출신의 총리와 고관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믿고 나라를 다스리게 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흠이나 허물이 없었던 다니엘에게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율법을 따르는 마음을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다니엘을 살피던 사람들은 그런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리오 왕은 밤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다니엘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했던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날 다리오 왕은 사자 굴을 찾아가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음이 없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참 신임을 고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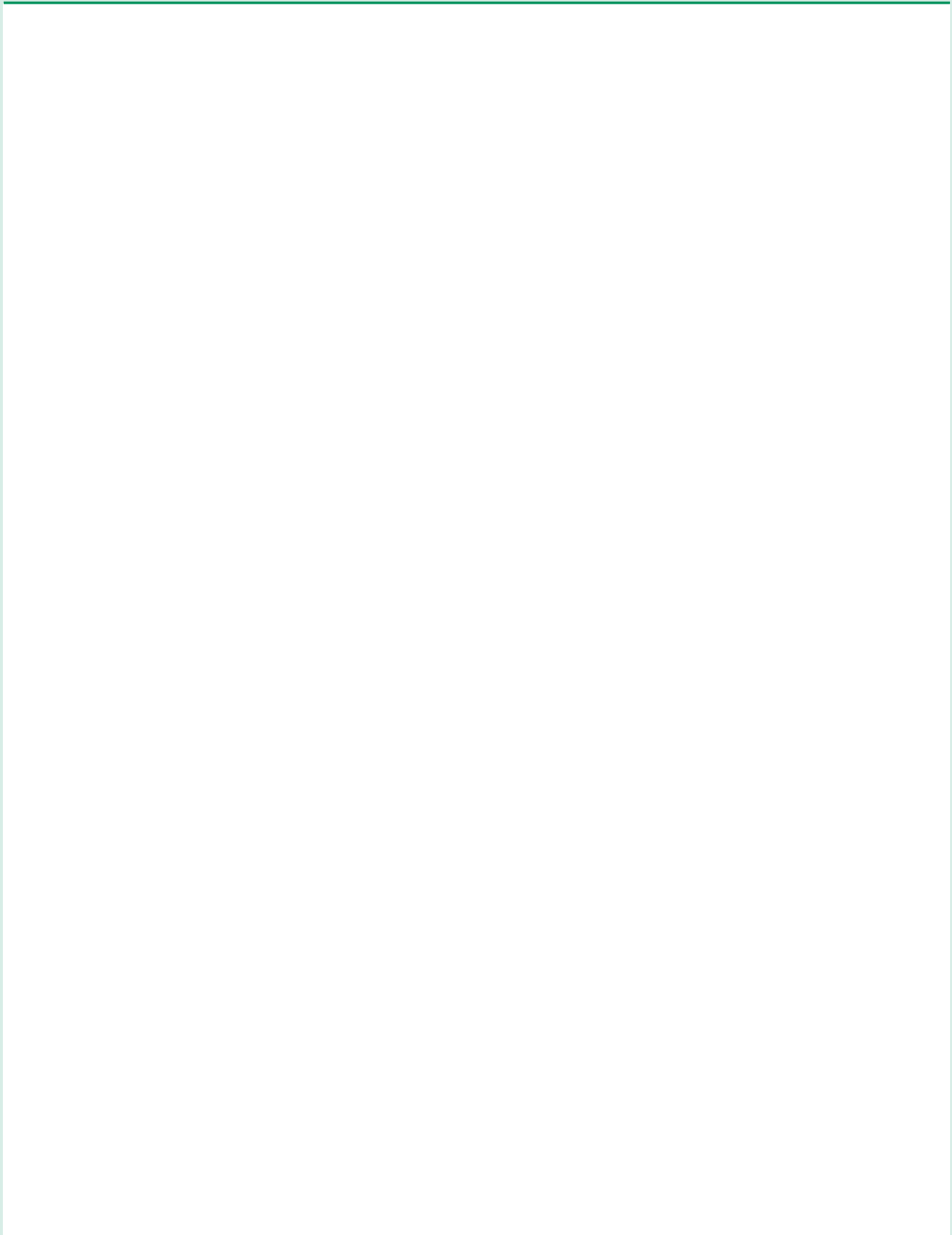
기도

하나님,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기도한 다니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9

SEPTEM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추석 연휴

26

27

28

29

30

이달의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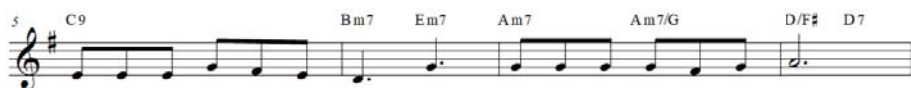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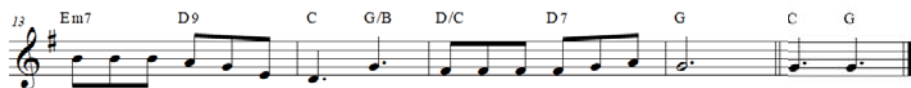
1. 빈 들 에 마 른 풀 같 이 시 들 은 나 의 영 혼
2. 반 가 운 빛 소 리 들 러 산 천 이 춤 을 추 네
3. 참 따 라 우 로 를 내 러 초 록 이 무 성 하 니
4. 참 되 신 사 랑 의 언 약 어 길 수 있 사 오 라



주 님 이 약 속 한 성 령 간 질 히 기 다 리 네
불 비 로 내 리 는 성 령 내 게 도 주 읊 소 서
갈 급 한 내 심 령 위 에 성 령 을 부 으 소 서
오 늘 에 흠 족 한 은 혜 주 실 줄 믿 습 니 다



가 문 어 메 마 른 땅 에 단 비 를 내 리 시 듯



성 령 의 단 비 를 부 어 새 생 명 주 읊 소 서 아 멘

9/5-11

1주 가정예배

하나님을 찾으라

아모스 5:4-8



이달의 찬양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37p



말씀읽기 - 아모스 5:4-8

- 0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 05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 사로잡히겠고 벤엘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 06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벤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 07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 08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생각하기

- Q1. 이번 주일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고 경험했나요? 모든 예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였나요?
- Q2. 평일과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듣기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였던 사람입니다. 농사를 하며 일상을 보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 온전한 일상,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특별한 공간, 성전을 습관적으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익숙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익숙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다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을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또는 예배 시간,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법을 인진(쑈)과 같은 풀과 같이 여기고 정의를 땅에 던지며 사랑과 공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2세였는데, 제2의 솔로몬 시대라고 여겨질 만큼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다른 시기보다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 악행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별과 별자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어둠에서 밝음으로 낮에서 밤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없으면 정의가 땅에 던져진 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농부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미가 7:7-9, 7:18-19



이달의 찬양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37p



말씀읽기 - 미가 7:7-9, 7:18-19

- 0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 08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 09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 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 19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생각하기

- Q1. 최근에 개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나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 Q2. 하나님의 특별한 부분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 부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말씀듣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는 자신을 ‘범죄한 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9절}.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상황’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19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마치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과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차마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화자는 자신의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화자는 다시금 민족을 구원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징표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벧전3:18}. 세상의 어떤 신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 대신 죽게 할까요? 세상의 어떤 신이 우리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세상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당시 예언자의 모습이자,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상황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

마태복음 6:1-4



이달의 찬양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37p



말씀읽기 - 마태복음 6:1-4

- 0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 0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0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 0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생각하기

- Q1. 착한 일을 했던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원해서 하루 종일 자랑했던 적이 있나요?
- Q2. 분명 칭찬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씀듣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이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에는 8복, 주기도문, 빛과 소금 등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선행을 하는 외식함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것을 모두가 알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선행을 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줄 때 행복해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의식해서 한 선행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선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티 나지 않게, 자랑하지 말고 은밀히 선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받는 올바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9/26-10/2

4주 가정예배

좋은 땅이 되는 우리 가정

마태복음 13:1-9



이달의 찬양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37p



말씀읽기 - 마태복음 13:1-9

- 0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 0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 0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0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 0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 0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0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 0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
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 0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생각하기

- Q1.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 본 일이 있나요?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 Q2.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말씀인지 한 번 나누어봅시다.



말씀듣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주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닷가 근처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진 곳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즉 씨앗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이렇게 크게 네 장소로 나누어져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씨앗이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말씀을 들긴 들었지만 환란과 고난이 다가오므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얇은 뿌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말은, 세상에서의 삶과 유혹으로 인해 최종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스스로의 마음의 자세와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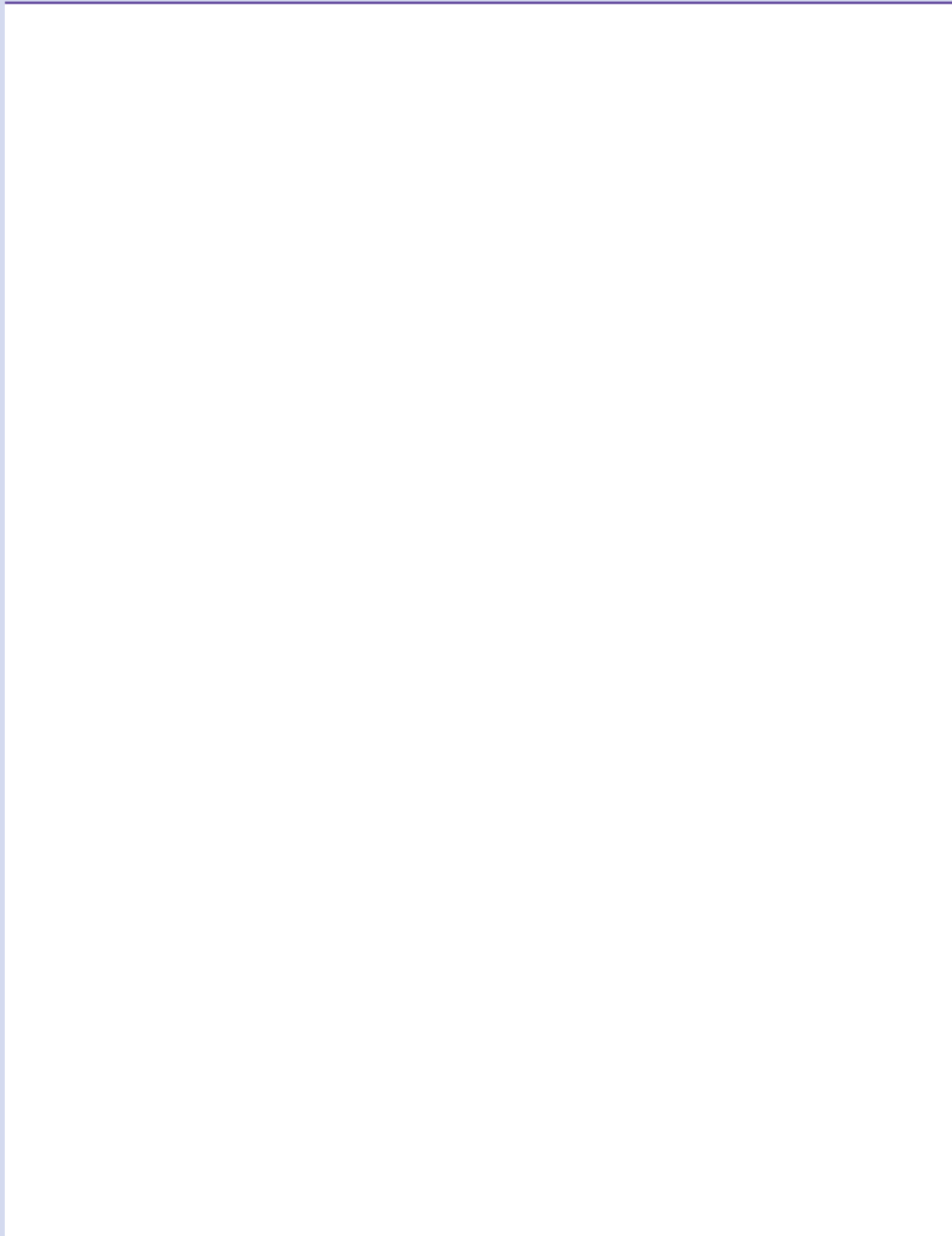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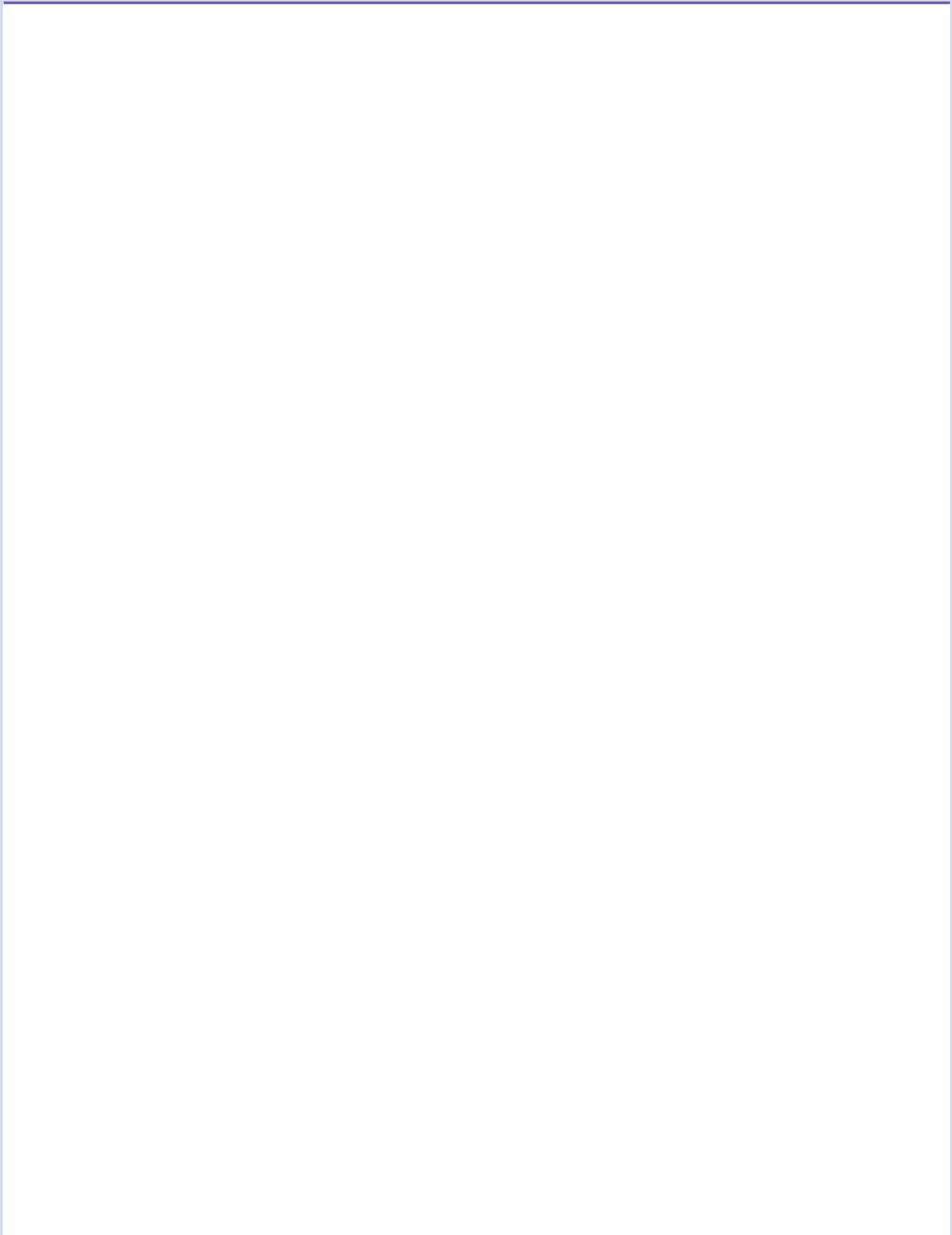
기도

하나님, 천국복음의 말씀이 귀하게 열매 맺는 저희 가정과 부모,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좋은 땅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발행통권 | 29호
발 행 일 | 2021년 7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 획 인 | 백성우, 정천우
편 집 인 | 지기원
디 자 인 | 한수진
집 필 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 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